

별로 보았을 때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회학적 변수로 교육수준은 정관술에 한하여 교육이 높은 군에서 풍문의 들은 빈도가 많았으며, 경제학적 변수로 경제수준은 풍문과 무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새마을지도자 건강요원의 인구학적 변수는 가족계획 실천률과 선택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평균차에 대한 검증이나 상관계수결과 이를 입증하고 있다.

3. 가족계획 풍문을 들은수에 따른 가족계획 실천률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 $F=1.88$ ,  $df_{01}=54.2$ ,  $p>0.01$ , 상관계수  $0.04$ ,  $p>0.01$ ) 가족계획 풍문이 가족계획 사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가정이나, 기존연구결과 풍문의 노출이 가족계획 실천과 정비례하는 것으로 보아왔으나, 본 연구결과는 이와 달리 무관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평균의 차의 검증,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떠나 분포의 유형을 검토한 결과 비례관계보다는 분포유형을 10개 도표중 8개 도표에 발견할 수 있었음을 미루어 풍문을 전혀 듣지 못한 경우와 자주 들은 경우, 가족계획 실천률이 낮은 현상을 보아 풍문은 유해 또는 무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B. 제언

1. 가족계획 풍문을 들은 빈도와 가족계획 실천률관계간에 밝혀진 여러 유형을 이루는 원인이나, 영향에 미치는 주요변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2. 본 연구는 가족계획 풍문률에 따라 실천률의 차이를 검토하였으나, 앞으로 가족계획 실천률에 따라 가족계획 풍문을 듣는 빈도의 차이를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 농촌부인의 산전산후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 일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

진주간전 논문집, Vol. 3, No. 1, pp. 5~10, 1979.

김 정 녀

임신경험이 있는 231명을 대상으로 농촌부인의 산전산후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연령분포는 36~40세가 가장 많고, 평균 연령은 38.8세, 교육수준은 국민학교가 으뜸이며, 생활수준은 중류, 임신횟수는 5-6회가 수위였고, 현존자녀수는 3-4명, 5-6명이 각각 동시에 가장 높았다.

2. 임신증상에 대한 지식은 복부가 커짐이 가장 많고, 입덧처리에 대하여는 오심구토는 정상이므로 그대로 둔다가 최고, 임신중 영양상태에 있어서는 평상시와 같이 섭취한다가 으뜸이며 유방관리의 필요여부는 잘 모른다가 수위였다. 또한 산전진찰을 시작하는 시기는 「잘 모른다」가 가장 많고, 진찰횟수는 「잘 모른다」, 태아성별이 결정되는 시기는 「잘 모른다」로 각각 낮은 지식 수준을 보였다.

3. 산욕기간은 「1-2주」 분만후 산모 식사는 「분만후 곧 먹는다」로 높은 지식 수준이다. 분만후 땀물은 「가끔 한다」가 40.7%로 낮은 지식이며 산후운동에 있어서는 「잘 모른다」로 빈약한 지식이며, 초유 처리는 「먹인다」와 「짜버린다」가 각각 39.8%로 같음은 아이로니컬하다. 수유시기에 대해서는 「1일후 먹임」이 32.1%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미루어보아 서부경남의 농촌 가임여성의 산전산후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그 수준이 대체로 낮은편으로 생각된다.

## 무의농촌 영아들의 예방접종에 관한 실태조사

중앙의학 36권 6호 pp. 457~462, 1979.

서 남 순

경북 안동군 내 5개의 무료지역을 선정하여 1979년 1월 현재로 13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영아를 가진 어머니 196명을 대상으로 기본 예방접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A. 예방접종별 지식도와 실천상황

1. B. C. G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이 있는 모는 18.3%이고, 접종완료율은 40.8%였다.

2. D. P. T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이 있는 모는 12.7%이고 접종완료율은 27.0%였다.

3. 소아마비 예방접종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이 있는 모는 20.4%이고, 접종완료율은 26.5%였다.

4. 홍역예방접종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이 있는 모는 33.7%이고 접종완료율은 43.9%였다.

B.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취득경로는 보건소 및 리·동사무소의 파견 간호원을 통해서가 32.4%로 수위였다.

C. 예방접종 실시장소로는 보건소 및 이동사무소가 58.1%로 수위였다.